

2019년 5월 30일, 서귀포시 예래동(하예2동) 예래5통경로당, 류진옥 조사.

원형도(남, 1940년생, 서귀포시 하예동)

- 일본 오사카 출생으로 4세에 서귀포시 하예동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다.

- 줄거리: 한 남자가 꿀을 베러 산에 가다 숲 속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 정신없이 따라갔다. 남자는 논에 빠졌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여자는 종적이 없고, 자신은 소도 잃어버리고,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헤매다가 겨우 살아 돌아왔다.

[제보자] 옛날에는 각 집집마다 요렇게 우마를 키우거든. 옛날 그저 농산데 요즘 농기계 그 대리 역할하는 것이 소 같은 거거든. 소 같은 게. 우마같은 것들인데. 그래서 그 이렇게 소를 키우젠 허며는 먹이를 해 와야 돼거든. 요렇게 가을 때 돼며는. 또 그리고 이제는 이 저 집들이 다 이 저 초가집이 없어가지고 옛날엔 다 초가 집이거든. 초가집이며는 제주도 말로는 새, 제주도 말로는 새고 이 육지에서는 그것 굴아 띠엔 허든가. 띠여 허든가.

그런 거 허레 갈 적에 그 어떤 분이 그 출인가 쉼 맥이는 출이라 하지게, 출인가 샌가 허레 이렇게 소를 몰안 가는데 어떤 여자가 7는대바구니, 이 바구니 해서 그 지형??지도 말해 주드라고 그때. 아 요렇게 가다 보며는 요렇게 그 저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. 그난 그 길로 안내허니까 자기는 그 길로 간 줄도 몰랐다는 거라.

그 여자 즈름에만 저 소는 내버리고 자기 혼자만 따라간 모냥이라. 겐디 그거 좀 가다가 그냥 그 논에 빠진 모냥이라. 그 사람이 쫓아가다가. 여자는 또 어디 간지레 모르고 나중에 정신 출려 보니까 쉼도 없지. 아 이제는 헐 수 없이 돌아 오니까 쉼은 주인이 안 가니까 거기 갈라진 디서 서 있드라 하더라고. 서 있다고. 그런 말 내가 들었지.

게난 그 우리 어릴 적엔 이제는 텔레비도 있고 허니까 그런 거라도 보면서 허지마는 옛날엔 아무 것도 없거든. 옛날 어른들 그냥 어른들 허는 말만 귀담아 재

있게 그 들은 거. 그런 정도로 허고 또 도체비, 그 우리 ㅁ을 안에 도체비 나타  
나네 요렇게 파랑한 불인데, 요레 뛰어갔다가 또 저리 그 불이 날라 다닌다 하더  
라고. 우린 아이 보니까 모르지마는.

게난 그것 보고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은 헛것을 봤다는 거지. 도체비도 헛것  
이다. 이 그슨새도 헛것이다. 모든 게 다 그런 헛것으로 그 저 그런 얘길 허드라  
고. 헛것이다. 아니 물체 제라헌 산 물체며는 그게 안 되는 거지.

- 핵심어: 우마, 새(띠), 촌(꿀), 도체비(도깨비), 그슨새(귀신), 헛것(귀신), 쉼(소)